

한국 아동의 일상생활 대화에서 나타난 바람과 믿음 : 산출자료를 중심으로*

Desire and Belief in Everyday Conversation of Korean Children :
Evidence from Language Production Data*

권은영(Eun-Yeong Gwon)¹⁾

이현진(Hyeonjin Lee)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10 Korean children's expressions of the mental states of desires and beliefs by analyzing mental state verbs as well as modal expressions in Korean production data. Mental expressions of desires and beliefs increased with increasing age. Two transition points of desires and beliefs were found in the data. First, belief expressions were less frequently produced than expressions of desires between 23 to 32 months. Second, belief expressions were much the same as desire expressions from 33 to 44 months. Finally, belief expressions were more frequently produced than desire expressions between 45 to 76 months. The authors suggest that these developmental transitions represent a conceptual change in understanding of mental states as proposed by Wellman (1990).

Key Words : 마음상태(mental state), 바람(desire), 믿음(belief), 양상표현(modal expression).

I. 서 론

아동이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다른 사람과

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더 나아가 사회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 이 논문은 권은영(2006)의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였음.

¹⁾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²⁾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eonjin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241-1, Dae-dong, Gyeongsan-city, Gyeongsangbuk-do 712-749, Korea
E-mail : hjlee@ynu.ac.kr

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눈으로 볼 수도,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을 추론하며 이해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단순히 신체적 물리적 움직임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행동에서 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일까?

Astington(1993)과 Baron-Cohen(1995) 그리고 Dennett(1978)는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람, 의도, 믿음과 같은 마음상태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상태에 근거하여 이해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마음상태를 갖고 있으며, 이 마음상태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이를 상식심리학(folk psychology) 또는 마음이론(theory of mind)이라고 한다(Bennett, 1993; Bretherton & Beeghly, 1982; Olson, Astington, & Harris, 1988; Premack & Woodruff, 1978; Wellman, 1979). 이와 같은 상식심리학 또는 마음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도구이며, 사회적 세계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Pillow, 1988; Wellman, 1990).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심리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마음상태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식심리학자(folk psychologist)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도 성인과 같은 상식심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마음상태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까?

마음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상을 이해해야 하기에(Perner, 1991; Wellman,

1990) 사람의 행동을 마음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어린 아동들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은 언제부터 사람의 행동을 마음상태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아동이 마음상태를 고려하는 능력은 대체로 연령에 따라서 증가하는데(Yuill, 1993)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외적이고 물리적으로 이해’ 하는 것으로부터 ‘내적이고 심리적으로 이해’ 하는 것으로 발달해 간다(Bartsch & Wellman, 1995; Wellman, 1990). 진화심리학적으로 마음이론을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론이 진화의 산물로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다고 가정한다(Baron-Cohen, 1995). 즉,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들도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이해의 전조적 능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생후 6개월 된 영아도 사람의 행동을 의도적인 것으로 이해하며(Woodward, 1998), 생후 1년 정도가 되면 상대방의 눈길과 얼굴표정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Sorce, Emde, Campos, & Klinert, 1985). 18개월이 되면 가장놀이를 시작하고(Repacholi, 1998), 2세경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바람, 정서, 소망 등 심리 내적 상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바람에 따라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Brown, Donelan-McCall, & Dunn, 1996; Tardiff & Wellman, 2000). 3세경의 아동들은 바람과 정서적 결과 사이를 이해하며(이현진, 2009; Lagattuta, 2005; Wellman & Lagattuta, 2000), 특정 사실을 본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 알지만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것을 이해한다(Hogrefe, Wimmer, & Perner, 1986). 4세 이후에는 사실과 다른 틀린 믿음(false belief)을 이해하는데, 이는 아동이 마음의 표상적 특성을 이해하기 시작함을 시사해준다(Wellman & Lagattuta, 2000; Wimmer & Perner, 1983). 마음에 대한 이해는 계속 정교화 되어 6세 이후가 되었을 때 동일한 사건을 사람에 따라 좋게 볼 수도 있고 나

쁘게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즉 동일한 자극이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지각된다는 것을 이해한다(Carpendale & Pillow, 1996). 이와 같이 어린 아동들도 행동을 마음상태에 기초하여 이해하는 초보적인 마음이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식은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정교화 되고 복잡화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실험을 통해 아동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아동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아동의 발화에서 마음상태와 관련된 용어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Bartsch와 Wellman(1995)은 10명의 미국 아동들의 발화로부터 마음상태와 관련된 용어를 분석하였는데, 아동들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마음상태에 대한 용어를 자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특히 마음의 구성요소 중 바람과 믿음을 표현하는 용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바람과 믿음이 마음의 핵심적인 구성개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Bartsch & Wellman, 1995). Bartsch와 Wellman(1995)은 18-21개월의 어린 아동들도 바람에 관련된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표현은 24-3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반면에, 믿음에 관련된 용어는 어린 시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바람에 관련된 용어가 감소하는 32개월경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이후에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유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4-36개월 사이 아동들의 일상생활 발화에서 바람과 믿음에 관련된 용어 비율의 교차곡선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시점이 틀린 믿음을 이해하는 시기와 대략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Wellman 등(Bartsch & Wellman, 1995; Wellman, 1990)은 이러한 결과를 마음이론 발달에서의 개념적 전환

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연구의 결과와 발화 자료로부터 Wellman 등(Bartsch & Wellman, 1995; Perner, 1991; Wellman, 1990; Wellman et al., 2001)은 아동의 마음이론에서의 발달적 전환을 이론 이론(theory theory)의 틀에서 설명하였다. 이들은 사람의 행동이 바람과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상태에 대한 이해가 표상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적 변화를 겪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아동들이 마음이론을 획득하는 과정에는 단계적인 변화가 있으며, 바람과 믿음이라는 마음의 작용법칙에 대한 이론이 점차 정확하게 변화함으로써 마음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Wellman(1990)에 의하면 어린 아동들은 사람의 행동이 바람과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2세 아동들은 바람과 같은 마음상태를 이해하지만, 마음이 외부세계를 특정 방식으로 표상한다는 표상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마음과 외부세계를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바람' 개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외부세계를 마음속에 표상해야 하는 '믿음' 개념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2세 아동들은 사람의 행동을 관계개념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바람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Wellman(1990)은 이 시기를 바람심리학(desire psychology) 단계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아동들은 3세가 되면 행동을 주로 바람에 근거하여 이해하나 믿음도 고려하기 시작하는데, 이와 같은 이해 방식이 바람-믿음심리학(desire-belief psychology) 단계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 바람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바람으로 설명이 안 될 경우에만 믿음을 2차적으로 고려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세 아동들은 마음의 표상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여전히 마음이해에 대한 제한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아동들은 상위표상(metarepresentation)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틀린 믿음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곤 한다. 아동들은 4세가 되어야 행동을 이해하는데 바람도 중요하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Wellman(1990)은 이를 믿음-바람심리학(belief-desire psychology) 단계라고 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때 믿음을 1차적으로 고려하고 바람을 2차적으로 고려하여 비로소 마음의 표상적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여 틀린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아동들은 바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을 보다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믿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더 핵심적인 마음상태임을 알게 되는 믿음-바람심리학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Wellman, 1990).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는 언어적 보편성과 언어마다의 특정성을 가지고, 발달은 사회문화적 경험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에(Hatano, 1997) 여러 문화에서의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Wellman & Inagaki, 1997). 특히 한국어에서는 바람이나 믿음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양상(modality)을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Choi, 1995). 양상이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의견을 나타내는 언어학적 영역이다(Palmer, 1986). 이러한 양상은 주로 문장 말미 접미어(sentence-ending suffix)를 동사에 부착하거나, 양상보조동사(auxiliary modal verb)를 첨가하여 표현한다(Choi, 1995).

- (1a) 내가 심부름 갈게.
- (1b) 나 사과 먹고 싶어.
- (2a) 내가 이길걸?
- (2b) 그건 안 읽은 것 같아.

(1a)에서는 “-(을)게”라는 접미어로 의도를 표현하고, (1b)에서는 “-고 싶다”라는 보조동사를 사용하여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2a)와 (2b)에서는 “-을걸”, “-은 것 같다”를 사용함으로써 진술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한 확실성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

의미적으로 양상은 행위자 지향 양상(agent-oriented modality)과 인식적 양상(epistemic modality)으로 구별된다(Bybee, 1985). 행위자 지향 양상은 문장이 서술하는 내용에 대한 행위자의 의무, 능력, 의미, 바람, 의도 등을 표현한다. 행위자의 의도나 바람을 표현하는 (1a)나 (1b)가 그 예가 된다. 반면, 인식적 양상은 화자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와 관련된 표현으로 가능성이나 확률의 의미를 포함한다(Moore, Pure, & Furrow, 1990). (2a)와 (2b)가 그 예가 된다. 이와 같이 행위자 지향 양상과 인식적 양상은 마음이론에서 주요 개념인 바람과 믿음에 대응됨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습득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발화 자료를 분석하여 바람과 믿음에 관한 용어와 양상표현을 살펴봄으로써, 연령에 따라 아동의 마음이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영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Bartsch와 Wellman(1995)의 결과와 비교하여 교차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들의 총 발화 양에서 마음 상태

의 발화 양(바람용어, 바람 양상, 믿음용어, 믿음양상)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아동들의 총 마음상태의 발화 양에서 바람(바람용어, 바람양상)과 믿음(믿음용어, 믿음양상)의 각 발화 비율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바람용어, 바람양상, 믿음용어, 믿음양상의 각 구성요소별 아동들의 발화 빈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정보

아동	성별	샘플수	수집기간 (개월)	수집 절차
A	여	24	59 - 70	2주 1회 30분
B	여	24	41 - 52	2주 1회 30분
C	남	24	65 - 76	2주 1회 30분
D	여	24	45 - 56	2주 1회 30분
E	남	24	46 - 57	2주 1회 30분
F	여	24	61 - 72	2주 1회 30분
G	여	24	49 - 61	2주 1회 30분
H	남	52	23 - 50	1주 1회 60분
I	남	53	24 - 36	1주 1회 30분
J	여	41	24 - 39	1주 1회 60분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청주, 대구에 거주하는 중류층 가정의 아동 10명(월령범위 : 23개월-76개월)의 발화를 종단적으로 수집한 전사(transcript)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표 1>에 정리하였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샘플수와 수집연도, 수집절차가 다른 이유는 기존의 발화 전사 자료(H-J 아동)와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A-G아동)를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H아동의 경우 발화수집 연도는 2001-2003년까지이며, 1주마다 60분간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I아동의 경우에는 1982-1983년에 1주마다 30분간 녹음하여 전사한 자료이며, J아동은 1992-1993년에 1주마다 60분간 녹음한 자료이다(J아동의 전사 자료는 총 41회기로 22-23회기 사이에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표집 되었음). 나머지 아동들의 발화 자료는 모두 2003-2004년에 2주마다 30분간 녹음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2. 연구절차

A-G아동들의 자료는, 연구절차와 발화 전사 방법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은 아동학 또는 심리학 전공의 학생 총 20명이 2인 한 팀을 이루어, 총 10팀의 실험연구원들이 각자 맡은 아동의 가정에 2주일에 1번씩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다. 한 팀의 실험연구원들은 수집기간 동안 계속 같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아동과 어머니 또는 아동과 다른 친숙한 성인과의 일상적인 대화(예 : 사진첩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 의미 있는 사건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기 등)를 녹음하거나 비디오로 촬영한 후 각 아동의 발화 자료를 전사하였다.

H-J아동들의 자료는, 심리학 또는 특수 언어교육학을 전공한 어머니가 본인의 연구목적에 위해 자신의 아이의 발화를 직접 녹음하고 전사한 자료이며 수집 절차는 A-G아동들의 발화 수집 절차와 유사하다. 10명 아동들의 전사 자료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는 본 논문의 연구자 2인이 실시하였다.

3. 코딩기준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10명 아동의 발화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발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배소영(2000)을 따랐다. 한 발화란 끝이 분명하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억양이나, 2초 이상의 쉼(pause)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발화의 경계로 삼았다(배소영, 2000, p.31). 한국어는 대화에서 주어,

목적어 등이 자주 생략되고, 아동 언어의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략이 있을 때 그 문장이 전후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때에는 발화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과 믿음에 대한 표현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표 2> 참조), 한국어에서는 바람이나 믿음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표 2> 마음상태의 구성요소별 코딩 기준

구성요소	코딩 기준
바람 용어	1 '바라다, 부러워하다, 하고자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 2 '생각대로 되기를 기다리다'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 3 '마음에 언짢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기를 꺼려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 4 '마음에 들다, 기대에 들어맞다'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
바람 양상	1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함을 나타내는 표현(단순한 희망) 2 말하는 사람의 소망이나 바람을 나타내거나 현실과 다르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 표현 3 과거의 상황을 조건으로 하거나 과거나 현재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문장 종결형처럼 쓰여 말하는 사람의 희망, 바람, 아쉬움을 표현 4 (동사에 붙어) 어떤 사실이나 상황으로 미루어 그런 것 같다고 추측, 의지를 표현하며 말하는 사람의 소망이나 바람이 현실과 다르게 되기를 바라는 표현 5 (동사에 붙어) 어떤 일을 할 의향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구체적인 의사표현)
믿음 용어	1 (어미 '-다, -냐, -라, -자, -마' 등에 붙어)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조사 '고' 와 함께 쓰여, 인용되는 말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표현 2 (동사 어간이나 '있다', '없다' 어간, 어미 '-았-', '-겠-' 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자신의 생각, 느낌을 말할 때 쓰는 어미 '-는걸'과 어떠한 사실에 대해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알다', '모르다'가 합쳐진 표현 3 '몰라서 궁금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 4 '마음속으로 바라다'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 5 (받침 있는 명사에 붙어) 문장의 목적어임을 나타내며 어떤 행위가 미친 직접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 '를'과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생각하다'가 합쳐진 표현 6 '잊지 않고 외어두다'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 7 ('이다', '아니다'에 붙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옮겨 말하거나 문장 주어의 생각,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 '라고'와 꼭 그렇게 생각해 의심하지 않다는 '믿다'가 합쳐진 표현 8 '기억하지 못하게 되다, 생각하지 아니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 9 (받침 있는 명사에 붙어) 문장의 목적어임을 나타내며 어떤 행위가 미친 직접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 '를'과 어떠한 사실에 대해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알다', '모르다'가 합쳐진 표현 10 '생각이 떠오르다'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 11 '의견, 의도, 사교, 사상, 깨달음, 기억, 관념, 기대, 판단, 상상, 각오, 느낌, 사려'라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

<표 2> 계속

구성요소	코딩 기준
	1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막연히 추측할 때 쓰이는 표현
1 -을(은) 것 같다	2 의향이나 의지,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2 -겠-	3 (동사 어간이나 '있다', '없다' 어간, 어미 '-았-' 뒤에 붙어)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3 -는(은)가 보다	4 어떤 사실에 대해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표현
4 -을걸	5 어떤 사실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을는지 모르다/알 수 없다)
5 -을는지	6 (동사에 붙어 '-을 것이다' 구성으로 쓰여)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나 의사, 주관적 소신이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근거하여 추측할 때 쓰이는 표현
믿음 양상 6 -을 것	7 (의문사와 함께 쓰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가진 정보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
7 -더라	8 질문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이며 '보다, 싫다, 하다, 생각하다, 걱정하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여 다른 문장에 안기면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8 -을까	9 말하는 사람의 다소 주관적인 생각이나 추측, 회의를 나타내는 표현
9 -나 싶다(보다)	10 말하는 사람이 (강한)추측하여 뒤이어 관련, 반대되는 상황을 제시함을 나타내는 표현
10 -을 텐데	11 그럴 이유나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하는 사람의 확신,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
11 -을 리가 없다	12 '-을 수밖에 없다' 보다 약한 추측의 표현으로 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쓰는 표현
12 -을 수 있(없)다	

출처 : 국립국어원, 2005; 민중서림 편집국 편, 2001.

도 있지만 다양한 양상(modality)을 사용하여 표현 되기에 양상을 분석에 포함하였다(Choi, 1995).

마음상태를 표현하는 자료를 코딩할 때, 발화에 포함된 것이 바람에 관련된 용어, 바람에 관련된 양상표현, 믿음에 관련된 용어, 믿음에 관련된 양상표현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서 한 가지 범주에 코딩하는 상호배타적인 분석을 하였다. 각 범주에 속하는 용어 및 양상표현은 한 번 나타날 때 마다 각 1회로 코딩되었다. 다른 사람의 발화를 단순히 반복, 모방하거나 이야기책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과 같은 상황에서 마음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나 양상표현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코딩은 본 논문의 연구자 2인이 구성요소별 기준에 적합한 발화를 구별하여 코딩을 하였고, 두 분석자 간에 코딩 결과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나 그 책 내용 생각이 잘 안 나.”라는 표현에서 한 명의 연구자는 믿음 용어 ‘생각’으로 코딩하고, 또 다른 연구자는 믿음 용

어 ‘생각나다’로 코딩한 경우, 이 표현에서의 생각은 ‘생각이 떠오르다’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이므로 두 연구자간 충분한 논의 후 ‘생각나다’로 최종적으로 코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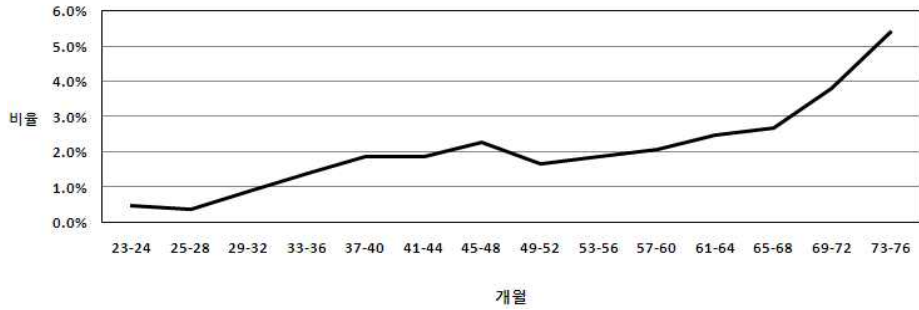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바람에 관련된 용어, 바람에 관련된 양상표현, 믿음에 관련된 용어, 믿음에 관련된 양상표현의 빈도를 구하여 연구문제에 따른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비율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총 발화 양과 마음상태 발화 양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10명 아동의 전사 자료 총 314



<그림 1> 연령별 아동의 총 발화에서 마음상태 발화 비율

회기를 분석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총 12,210분으로 1회기 당 평균 38.8분이 소요되었다. 각 회기에서의 총 발화 양과 마음상태를 표현하는 발화 양을 산출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비율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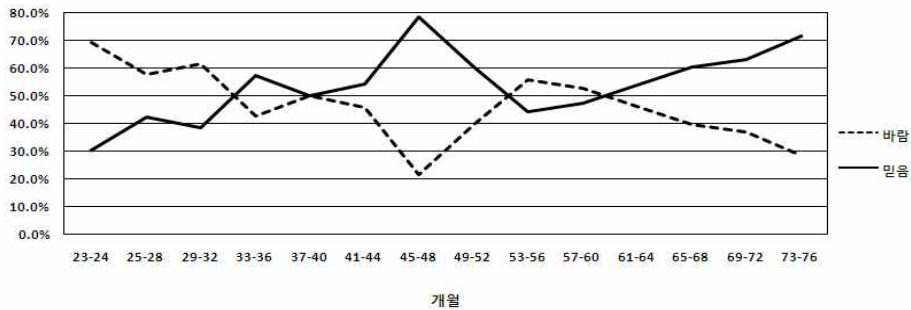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10명 아동의 발화 자료 연령 범위는 23개월에서 76개월이었다. 교차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Bartsch와 Wellman(1995)의 분석에 상응한 기준을 사용하여 처음 23-24개월을 묶고, 25-76개월 사이는 4개월 간격으로 묶어서 총 14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연령의 범주마다 아동들의 발화를 더하여 총 발화 양으로 삼았다. 바람과 믿음을 나타내는 용어와 양상표현도 더하여 마음상태 발화 양을 산출하였다. 아동의 총 발화에서 마음상태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림 1>에 제

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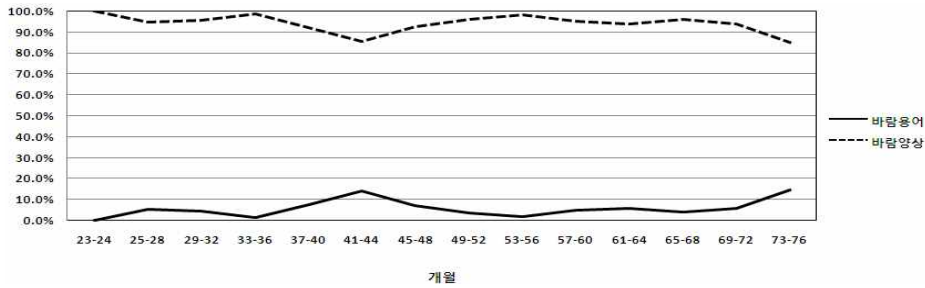
가장 어린 집단인 23-24개월 사이에서는 마음상태의 발화 비율이 총 발화에서 1%도 차지하지 않았지만, 73-76개월 사이에는 6%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총 발화 양에 대한 마음상태 발화 비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연령별 바람과 믿음의 발화 비율

Bartsch와 Wellman(1995)은 18-21개월 사이의 어린 아동들이 바람에 관련된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였고, 이러한 바람에 대한 표현은 24-3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반면에, 믿음에 관련된 용어는 어린 시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그림 2> 연령별 바람과 믿음의 발화 비율



<그림 3> 연령별 바람에 관한 용어와 양상표현의 발화 비율

바람에 관련된 용어가 감소하는 32개월경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이후에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유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아동들의 일상생활 발화에서 24-36개월 사이에 바람과 믿음에 관련된 용어 비율의 교차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Bartsch와 Wellman(1995)은 이러한 결과를 아동의 마음이론 발달에서의 개념적 전환으로 해석하였다.

Bartsch와 Wellman(1995)이 보고한 발달 패턴은 본 연구 결과와도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어린 연령(23-24개월)에서는 바람에 관련된 발화 비율이 믿음에 관련된 발화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믿음에 관련된 발화 비율은 가장 어린 연령에서 바람에 관련된 발화 비율보다 더 낮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증가하여 33-36개월 사이에는 바람에 관련된 발화 비율이 더 높아졌고, 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바람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Bartsch와 Wellman(1995)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마음이론 발달이 바람심리학에서 바람-믿음심리학으로, 그리고 믿음-바람심리학으로 전환됨을 지지해 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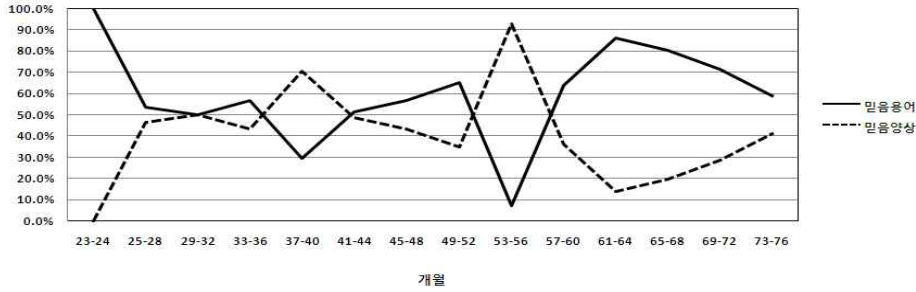
3. 연령별 바람에 관한 용어와 양상표현의 발화 비율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마음상태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양상을 이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바람에 관한 용어뿐만 아니라 양상 표현의 비율도 분석하여 <그림 3>에 정리하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는 바람에 관련된 용어보다는 바람에 관련된 양상표현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연령별 믿음에 관한 용어와 양상표현의 발화 비율

믿음에 관한 용어와 양상표현을 <그림 4>에 정리하였다. 믿음에 관한 용어와 양상표현의 발화 비율은 바람에 관한 용어와 양상표현의 발화 비율 결과와는 달리, 믿음에 관한 용어가 믿음에 관한 양상표현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연령 집단에서 예외적 패턴을 보였는데 37-40개월 그리고 53-56개월 사이에서는 믿음에 관련된 양상표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이외의 연령에서는 믿음에 관련된 용어가 믿음에 관련된 양상표현의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연령별 믿음에 관한 용어와 양상표현의 발화 비율

5. 바람과 믿음에 관련된 용어와 양상표현의 발화 빈도

바람에 관련된 용어로는 “싫다”(예 : 나는 철이 오빠하고 놀기 싫어)가 35회(2.00%)로 가장 빈번히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바라다”(예 : 네가 바라던 거지?), “좋다”(예 : 나는 엄마랑 하는 게 좋아)가 2회(0.11%) 나타났고, “원하다”라는 용어는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바람에 관련된 양상표현으로는 ‘어떤 일을 할 의향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사 표현인 “-을래”(예 : 나 이거 그럴래)라는 표현이 432회(24.73%)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고 싶다”(13.80%), “-을까 보다”(0.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 아동들의 발화 자료에서 바람의 경우 용어보다 양상으로 표현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믿음에 관련된 용어로는 “-를 알다(모르다)”가 373회(21.35%)로 가장 빈번히 나타났으며, “-는 걸 알다(모르다)”(7.96%), “잇다(까먹다)”(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믿음에 관련된 양상표현 중에는 “-겠”(예 : 식초에 계란껍질이 녹으면, 내 손도 녹겠네?)이 75회(4.29%)로 가장 빈번히 나타났고, “-을(은) 것 같다”(3.72%), “-는(은)가 보다”(3.2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믿음의 경우에는 바람과는 달리

양상보다는 용어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들의 자발적인 발화 자료에서 바람과 믿음에 관한 용어와 양상표현들을 분석함으로써 마음이론의 발달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첫째, 한국 아동들은 23개월 정도부터 일상생활 대화에서 마음상태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연령에 따라 증가를 보였는데, 가장 어린 연령인 23-24개월 사이에서 마음상태의 발화 비율은 총 발화에서 1% 정도였지만, 73-76개월 사이에는 6% 정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Bartsch와 Wellman(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Bartsch와 Wellman(1995)은 가장 어린 연령인 18-24개월 사이에서 마음상태의 발화 비율은 총 발화에서 1% 정도였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5% 수준으로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두 언어권에서 2세 정도부터 마음상태를 표현하는 발화가 나타나는 것은 언어 보편적 현상임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상태에 대한 이해가 아주 어린 연령에서부터 나타난

<표 3> 바람과 믿음에 관련된 용어와 양상표현의 발화 빈도와 백분율

		구성요소	빈도	백분율
바람 용어	1	싫다	35	2.00
	2	바라다	2	0.11
	3	좋다	2	0.11
	4	원하다	0	0.00
바람 양상	1	-을래	432	24.73
	2	-고 싶다	241	13.80
	3	-을까 보다	5	0.29
	4	-았(었) 으면	2	0.11
	5	-(으)면 좋겠다	1	0.06
믿음 용어	1	-를 알다(모르다)	373	21.35
	2	-는걸 알다(모르다)	139	7.96
	3	있다(까먹다)	37	2.12
	4	-를 생각하다	36	2.06
	5	생각하다	31	1.77
	6	생각	16	0.92
	7	기억하다(나다)	11	0.63
	8	궁금하다	8	0.46
	9	-고 생각하다	6	0.34
	10	-라고 믿다	2	0.11
	11	꿈꾸다	0	0.00
믿음 양상	1	-겠-	75	4.29
	2	-을(은) 것 같다	65	3.72
	3	-는(은)가 보다	56	3.21
	4	-나 싶다(보다)	52	2.98
	5	-더라	28	1.60
	6	-을걸	28	1.60
	7	-을까	20	1.14
	8	-을 수 있(없)다	18	1.03
	9	-을는지	17	0.97
	10	-을 것	17	0.97
	11	-을 텐데	2	0.11
	12	-을 리가 없다	2	0.11

는 영아연구들의 증거(Bates, Benigni, Bretherton, Camaioni, & Volterra, 1979; Butterworth, 1991; Scaife & Bruner, 1975)들과도 맥을 같이 하며, 믿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일찍 나타나는 능력임을 시사해 준다.

둘째, 본 연구의 <그림 2>에서 보이는 전반적

인 발달 경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23-32개월 사이에는 바람에 대한 발화가 믿음에 대한 발화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33-44개월 사이에는 믿음에 대한 발화가 바람에 대한 발화와 비슷한 정도로 산출되다가, 45-76개월 사이에는 믿음에 대한 발화 양이 바람에 대한 발화 양을 능가하였다.¹⁾ 이러한 발달적 패턴은 영어를 습득하는 아동들의 발화를 분석한 Bartsch와 Wellman(1995)과, Jenkins, Turrell, Kogushi, Lollis 그리고 Ross(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Bartsch와 Wellman(1995)은 미국 아동들의 발화 자료에서 2세경에는 바람에 대한 발화가 빈번하게 나타나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반면 믿음에 대한 발화는 2세경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3세에서 4세) 점진적으로 발화 양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enkins 등(2003)도 아동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마음상태 용어를 분석하여 2-4세 사이에 믿음 관련 용어가 크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표현은 4-6세 사이에도 계속 증가하는 반면, 바람을 표현하는 용어는 이 시기에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2>에서 보이는 결과는 영어권 자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마음이해의 발달에서 중요한 개념적 변화를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에 관한 발화가 감소하고 믿음에 관한 발화가 증가하는 4세경에 틀린 믿음을 이해한다는 결과는 이러한 개념적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또한 한국 아동의 자료에서 나타

1) 이러한 발달 양상에 예외가 있는데, 53-60개월 사이에 믿음 발화 양이 바람 발화 양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예외적인 패턴보다는 전반적인 발달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나는 바람과 믿음 발화 비율의 전환은 마음이론 발달이 바람심리학에서 바람-믿음심리학으로, 그리고 믿음-바람심리학으로 전환한다는 Wellman 등(Bartsch & Wellman, 1995; Wellman, 1990)의 주장을 언어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마음상태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양상을 이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는 점이다(Choi, 1995). 한국어에서 ‘바라다’, ‘-고 싶다’와 같은 표현들은 순수하게 바람만을 표현해주지만, ‘-올래’, ‘싫다’라는 표현들은 바람과 의도 둘 다의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바람만을 나타내는 표현보다는 바람과 의도, 의지, 선호 등의 의미가 포함된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람은 행동을 설명하는 중심개념이지만 바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의도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Wellman, 1990). 다시 말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도 바람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으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바람은 의도에 붙을 지피고 의도는 바람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Bratman (1987) 역시 바람은 다양한 면에서 충족될 수 있지만, 의도는 특별한 행동과 연관되어 인과적으로 충족되므로 의도와 행동은 바람과 행동보다 더 큰 관련성이 있고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의도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바람과 의도는 미래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와도 관련되는데, 의도는 바람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 다른 의도를 강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의도에 현재의 바람보다는 현재의 의도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의도와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Wellman, 1990). 본 연구에서 순수한 바람만을 나타내는 표현보다 의도의 의미가 포함

된 표현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 것은 아동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발화를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의 발화는 순수한 바람에 관한 표현보다는 행동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도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순수한 바람의 뜻만을 가지고 있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행동과 관련된 표현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람과 달리, 믿음은 인식 상태(epistemic state)를 나타낸다. 인식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표상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은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표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아동들에게서 믿음에 대한 표현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확률, 추측을 표현하는 “-겠”, “-을(은) 것 같다”와 같은 양상 표현들이 바람과 관련된 양상 표현보다 나중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식 상태를 표현하는 믿음과 관련된 용어들은 그 출현 빈도와 시기가 다른데, 이러한 용어들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를 알다(모르다)”, “-는걸 알다(모르다)”와 같은 표현으로 한국 아동들의 발화 자료에서 23개월부터 빈번히 나타났다. 반면에, “-를 생각하다”는 “-를 알다(모르다)”, “-는걸 알다(모르다)”보다 그 출현 빈도가 낮고, 아동들의 발화 자료에서 34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차이는 동사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Kirparsky와 Kirparsky(1970) 그리고 Scoville과 Gordon(1980)은 마음상태를 나타내는 인지 동사가 사실성(factivity)을 전제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성 동사(factive verb)와 비사실성 동사(non-factive verb)로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구별에 따르면, 사실성 동사인 “know”, “remember” 그리고 “realize” 등은 그 동사가 취하는 보문(sentential complement)의 진릿값(truth

value)이 ‘참(true)’일 것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I know that Seoul is crowded.”라는 문장에서 ‘Seoul is crowded’의 진릿값은 ‘참’이어야 한다. 반면에, 비사실성 동사인 “think”나 “believe”와 같은 동사의 보문의 진릿값은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I think that she is kind.”라는 문장에서 ‘-that’ 이하 절은(she is kind)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문을 포함하는 통사적 구조의 의미가 ‘거짓’ 명제를 표상한다면, 이러한 구조는 마음상태와 실제 간의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상해야 하는 틀린 믿음과 공유된 논리가 있을 것이다. Cheung, Chen 및 Yeung(2009)은 광둥어를 습득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마음상태 동사와 틀린 믿음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비사실성 동사인 “think”나 “believe”가 사실성 동사인 “know”나 “realize” 보다 틀린 믿음을 더 잘 예측해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hink”와 같은 비사실성 동사가 실제 사실과는 다른 ‘거짓’ 명제를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성 동사인 “know”는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참’을 전제하므로, 표상능력을 필요로 하는 “think”와 같은 비사실성 동사보다는 틀린 믿음을 잘 예측해주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들이 “know”를 “think” 보다 먼저 이해하고 “think”를 발화하는 시점이 틀린 믿음을 이해하는 시점과 더 가까운 것은 이러한 동사의 성질에서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 아동들은 2세 정도의 어린 연령에서부터 일상생활 대화에서 마음상태 용어를 표현하고 이는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바람에 대한 표현은 감소하고 믿음에 대한 표현이 증가하는 발달적 경향은 Wellman 등

(Bartsch & Wellman, 1995; Wellman, 1990)이 주장한 아동의 마음이론 발달이 바람심리학에서 바람-믿음심리학으로, 그리고 믿음-바람심리학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언어 보편적으로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용법편.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민중서림 편집국 편(2001).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제5판). 서울 : 민중서림.
- 배소영(2000). 한국어 발화분석 2.0(KCLA2.0). 서울 : 특수교육.
- 이현진(2009). 한국 아동에서 살펴본 바람, 의도, 정서, 사회적 규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2(1), 1-18.
- Astington, J. A. (1993). *The child's discovery of mind*.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Baron-Cohen, S. (1995). *Mindblindness : an essay on autism and theory of mind*. Cambridge, MA : The MIT Press.
- Bartsch, K., & Wellman, H. N. (1995). *Children talk about the min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Bates, E., Benigni, L., Bretherton, I., Camaioni, L., & Volterra, V. (1979). Cognition and communication from 9-13 months : correlational findings. In E. Bates(Ed.), *The Emergence of symbols : cognition and communication in infancy*. New York : Academic Press.
- Bennett, M. (1993). Introduction. In M. Bennett(E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on : the child as psychologist*.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Bratman, M. E. (1987). *Intentions, plans, and practical reason*.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Bretherton, I., & Beehly, M. (1982). Talking about internal state : the acquisition of an explicit theory

- of min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906-21.
- Brown, J. R., Donelan-McCall, N., & Dunn, J. (1996). Why talk about mental state? The significance of children's conversations with friends, siblings, and mothers. *Child Development*, 67, 836-849.
- Butterworth, G. (1991). The ontogeny and phylogeny of joint visual attention. In A. Whiten(Ed.), *Natural theories of mind*. Oxford : Blackwell.
- Bybee, J. (1985). *Morphology :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 John Benjamins.
- Carpendale, J. I., & Pillow, B. H. (1996). On the distinction between false belief understanding and subscribing to an interpretive theory of mind. *Child Development*, 67, 1686-1706.
- Cheung, H., Chen, H. -C., & Yeung, W. (2009). Relations between mental verb and false belief understanding in cantonese-speaking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4(2), 141-155.
- Choi Soonja. (1995). *The development of epistemic sentence-ending modal forms and functions in korean children*. Philadelphia :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 Dennett, D. (1978). *Brainstorms : philosophical essays on mind and psychology*. Cambridge, MA : Bradford Books/MIT Press.
- Hatano, G. (1997). Commentary : core domains of thought, innate constraints, and sociocultural context. In H. Wellman & K. Inagaki(Eds.), *The emergence of core domains of thought : the children's reasoning about physical,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phenomena*.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 Hogrefe, J., Wimmer, H., & Perner, J. (1986). Ignorance versus false belief : a developmental lag in attribution of epistemic states. *Child Development*, 57, 567-582.
- Jenkins, J. M., Turrell, S. L., Kogushi, Y., Lollis, S., & Ross, H. S. (2003).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dynamics of mental state talk i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4(3), 905-920.
- Kirparsky, P., & Kirparsky, C. (1970). Fact. In M. Bierwisch & K. Heidolph(Eds.), *Progress in linguistics*. The Hague : Mouton.
- Lagattuta, K. H. (2005). When you shouldn't do what you want to do :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sire, rules, and emotion. *Child Development*, 76, 713-733.
- Moore, C., Pure, K., & Furrow, D. (1990).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modal expression of speaker certainty and uncertainty and its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a representational theory of mind. *Child Development*, 61, 722-730.
- Olson, P. R., Astington, J. W., & Harris, P. L. (1988). Introduction. In J. Astington, P. Harris, & D. Olson (Eds.), *Developing theories of min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ner, J. (1991). *Understanding the representational mind*. Cambridge, MA : MIT Press.
- Pillow, B. H. (1988).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beliefs about the mental world. *Merrill Palmer Quarterly*, 34, 1-32.
- Premack, D., & Wooruff, G. (1978). Does the chimpanzee have a theory of mind?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1, 515-526.
- Repachol, B. M. (1998). Infant's use of attentional cues to identify the referent of another person's emotional ex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1017-1025.
- Scaife, M., & Bruner, J. (1975). The capacity for joint visual attention in the infant. *Nature*, 253, 265-266.
- Scoville, R. P., & Gordon, A. M. (1980). Children's understanding of factive presuppositions : an experiment and a review. *Journal of Child Language*,

- 7, 381-399.
- Sorce, J. F., Emde, R. N., Campos, J. J., & Klinert, N. D. (1985). Maternal emotional signaling : it's effect on the visual cliff behavior of 1-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95-200.
- Tardiff, T., & Wellman, H. M. (2000). Acquisition of mental state language in Mandarin-and Cantonese speaki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6* (1), 25-43.
-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 Bradford.
- Wellman, H. M. (1979). *A child's theory of mind*.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The growth of insight in the child, Madison, Wisconsin.
- Wellman, H. M., Cross, D., & Watson, J. (2001). A Metaanalysis of theory of mind development : the truth about false belief. *Child Development, 72*(3), 191-214.
- Wellman, H. M., & Inagaki, K. (1997). Editor's note. In H. Wellman & K. Inagaki(Eds.), *The emergence of core domains of though : the children's reasoning about physical,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phenomena*.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 Wellman, H. M., & Lagattuta, K. H. (2000). Developing understanding of mind. In S. Baron-Cohen, H. Tager-Flusberg, & D. J. Cohen(Eds), *Understanding other minds : perspectives from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2nd ed., pp.21-49).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Wimmer, H., & Perner, J. (1983). Beilefs about beliefs : representation and constraining function of wrong beliefs i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ception. *Cognition, 13*, 103-128.
- Woodward, A. (1998). Infants selectively encode the goals of a human actor. *Cognition, 69*, 1-34.
- Yuill, N. (1993). Understanding of personality and dispositions. In M. Bennett(E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on : the child as psychologist*.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2009년 8월 31일 투고, 2009년 11월 10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